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어느 시골교회 목회자의 뒷두리

-김영현 목사-



삼십 년 된 시골교회
부임한지 십년이 지나도 사십 명이 안되는 교회
도회지로 나간 성도가 남아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은 교회
일꾼이 없어 장로를 세울 수 없는 교회 노회에서는 미조직교회로
나는 언제나 임시목사로 그렇게 세월만 죽이면서 예배당 하나 다시 지

었다

교회 설립 삼십 주년 기념으로 이십 만원짜리 돼지 한 마리 잡아
동네 노인들 모셔놓고 잔치하고 싶었으나 가난한 성도들 호주머니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
그 주간 교계신문에 서울 어느 교회는 교회설립 삼십 주년 기념예배 광고가
신문 반 장이나 차지했다

주님이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찾아온 시골교회
십년이 지나도 전 주민 복음화는 고사하고 아직도 사십명이 안되는 성도
그 중에 절반은 예수가 없었다
일구역 성도 중에 가장 젊은 이가 예수 일곱 표순덕 권찰님

겨우 겨우 전도해서 예수 믿고 주일 성수 십일조 하더니
도시로 나간다고 인사하는 젊은 부부
이사가는 곳 심방 가서 가까운 교회 친구목사에게 소개해 주고
먼길 운전해서 오면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울면서 돌아왔다

첫돌 지난 첫째를 안고 백일도 채 안된 둘째를 업고
갈 바를 모르고 찾아온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라서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
믿음없는 나는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는데 도시의 친구들은 하기좋은 말로
"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!" 위로를 한다

나도 부교역자 청빙광고 한번 내어 봤으면 장로도 세우고 위임식도 해봤으면
미자립교회 딱지 떼고 선교비도 구제비도 좀 많이 보내 봤으면
그래 이왕이면 동창목사를 초청해 놓고 지난날 신학교 시절 발표 얻어 시장기를 면했던
그 빛을 한번 갚아 봤으면

아니 청년교사들이 있어서 주일학교도 힘있게 하고 성가대도 임명해서 찬양 좀 하게
했으면
주일이면 은 동네 다니면서 노인들 좀 부축해 오고
하루 종일 시골벽적 교회 안이 요란했으면
일에 시달리고 삶에 지친 성도들이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당 오고싶어 했으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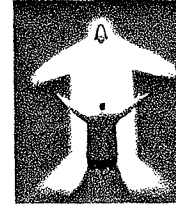
낙후된 시골동네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어
누군가가 지켜야할 시골교회 그래서 떠날 수 없는 시골교회
"목사님, 가시려거든 날 물어주고 가시쇼이!"
물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때문에
그래서 더욱 떠날 수 없는 시골교회 (1996년 어느 날에)



◀추억 생각하기▶ 세 바퀴로 가던 삼륜차
웬지 어느 동남아시아에는 지금도 있을 것 같은 삼
륜자동차가 우리나라에는 진작 있었습니다. 4바퀴
자동차보다 타이어 값이 절약될 것 같은데 어쩔일
인지 지금은 추억 속에서만 그려볼 수 있습니다. 시
골동네에 들어온 이 차 뒤를 매달리려고 뛰어가다
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적도 있습
니다. 운전석에 룸미러가 있어 뒤를 볼 수 있다는 것
을 몰랐었죠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'2003년 교회생활: "건강한가정, 건강한교회"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 5권 17 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3년 4월27일
☎520-9464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		

군복 입은 천사



어느 날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.
다. 할머니의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. 의사들은 당장 수
혈을 하지 않으면 그 날 저녁을 넘기지 못한다고말했습니다. 문
제는 할머니의 혈액형이 Rh- AB라는 데 있었습니다. Rh- AB는 요
즘도 구하기가 힘들지만, 혈액은행도 없고 혈액을 공급할 운송시
설도 없던 그 당시에 Rh- AB 혈액을 구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한
것이었습니다. 식구 모두가 다 검사를 받아 보았지만 그러한 혈

액형을 찾을 수가 없었다. 할머니를 살릴 희망은 없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.
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하도록 친척들을 데리러 갔습니다. 병원을 나서는
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.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한 군인이 엄
지손가락을 세워서 차를 태워 달라고 했습니다. 아버지는 크게 상심하여 있었기 때
문에 그 군인을 태워 줄 마음이 없었지만 어떤 큰 힘에 끌린 듯 차를 세우고 군인이
차에 타도록 허락했습니다.

아버지의 눈에서 뺨으로 흐르는 눈물을 본 그 군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.
Rh- AB혈액형을 찾을 수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설명하
면서 오늘 저녁 안으로 같은 혈액형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
니다.

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그 군인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펼쳐 아버지에게 내
밀어 보였습니다. 그 손바닥 위에는 그의 군번표가 있었고 거기에는 혈액형이 Rh-
A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군인은 아버지에게 당장 차를 돌려서 병원으로 갈 것을 재
촉하였습니다. 할머니는 그 일이 있은 후 47년이나 더 사시다 1996년에 돌아가셨습
니다.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군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 아버지는 가끔
우리에게 말합니다. ' 그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천사' 이었다고 말입니
다.

신약에는 모두 194회에 걸쳐 '천사' 혹은 '사자'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
저 불한당 만난 사람의 이웃인 '사마리아'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신약성경에는 참
으로 수많은 천사들과 가득차 있다 할 것입니다. 혹 당신도 천사가 아닌지 모르겠습
니다.

"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
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
보아 주고 "[눅 10:33-34]

엄마가 딸에게
이승우화를 읽어라
거기에는 단순하면서도
번뜩이는 삶의 지혜들이
담겨있단다

아버지가 아들에게
항상 말에 품위를 갖추어라
얻어 맞은 아픔은 사라지지만
모욕당한 말은
영원히 남는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밑에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"Calvary"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1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51(히 11장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		주일학교
찬송 Hymn	208장	다 같이
기도 Prayer		최재학 집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누가 24:13-35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심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'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'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172장	다 같이
헌금 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 (1절:주차안내부, 2절:다같이)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4,5월의 예배위원◆

일자	주일기도	헌금위원	가족찬송	Tea Time
27	최재학	민광호	주차안내부	이근평, 이재운
4	김교섭	박병민	강순남(종업, 종휘)	정관영, 정성호
11	김순자	박상욱	결식자봉사부	조용건, 최득수
18	김영길	박 실	현석호, 임병숙	최현철, 경덕현
25	김종건	박재양	선교부	권용일, 김경구

'2003년 교회표어
"건강한 가정, 건강한교회"(마 18:4)
부모의 기도받는 자녀
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
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7시

- 교우소식
*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
현석호 안수집사, 임병숙 권사, 종민, 종욱 ☎419-5556
☐ 29 Ian Marwick Pl, Birkenhead
- 정기월례회
*제1여선교회, Tea Time을 하면서 정기월례회로 모입니다
*제2여선교회, 다음주일에 모이겠습니다
- 정기당회, 29일(화) 저녁7:30
- 권사기도회, 1일(목) 오전11시
- 제 9기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(4주)
*갈보리교회 등록후 의무과정인 기초성경공부과정입니다. 참여신청서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(안내석)
*일시:5월 매주 화요일(6.13.20.27일) 저녁 7:30 교회
- 수요일예배 <일시> 매주 수요일 저녁 7:30
*찬양, 기도, 말씀으로 갖추어진 성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.
- 성경필사본 열람
*Tea Time을 가지면서 Hall에 준비된 '부활절 봉헌 성경필사본'으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
- Term II 시작
*방학날 가져갔던 도시락을 어제서야 슬그머니 내어놓는 아들을 보며 밀린 방학 일기를 밤새워 채워 넣던 일이 생각났습니다.
갑절의 지혜로 인도함 받는 Term II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 열심히 공부하는 Second Term 되세요.

◀착한 시인들▶

남으로 창을 내겠소

-김상용-

남(南)으로 창(窓)을 내겠소.
발이 한참같이
괘이로 파고
호미론 김을 매지오.
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.
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.
강냉이가 익걸랑
함께 와 자셔도 좋소
왜 사냐건
웃지오.

사업하시는 어느 집사님의
'하나 풀리는가 했더니 다른
하나가 막힌다'는 말에 가슴이
메어졌습니다.
혹시 나만 책을 손에 들고 여
유 누리며 지내는 특권계급이
아닌지 부끄러울 뿐입니다.
언덕 오르는 노파처럼 하루하
루가 버거운 날들이지만 웃고
대답하지 않으나 마음이 스스
로 한가롭기를 애써 봅니다